

## 1980년대 임수생의 리얼리즘 시와 검열 의식

손 남 훈\*

###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리얼리즘 시 경향의 고착화와 시인 |
| 2. 1980년대 임수생 시텍스트의 확정 | 의식의 강박적 반복            |
| 3. 임수생 시의 시적 경향 분류     | 5. 나가며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80년대 임수생 시의 계열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 경향을 살핌으로써 임수생 시의 리얼리즘 시편이 지닌 80년대적 의미를 고찰한다. 아울러 임수생 시가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심리적·경험적 이유에 대해서도 가설적 성격의 고찰을 시도한다.

임수생 시인의 1980년대 시편을 살핀 결과, 그의 작품은 검열에 대한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그의 상당수의 작품이 검열을 의식하면서 작품 게재 여부를 판별한 정황적 근거가 확인된다. 1980년대 초·중기의 작품들이 리얼리즘 성향을 지니면서도 소박한 당위적 진실을 재현하는 데 머물거나 알레고리를 비롯한 우회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 인제대학교

검열과 관련된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검열이 다소 약화되면서 그의 작품들은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정치 성향을 더 강력한 구호적 메시지와 함께 분출해낸다. 검열의 시대였던 1980년대, 임수생 시인은 검열 의식과의 고통 가운데서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 여부를 고민하였으며, 시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를 통과한 한 리얼리스트 시인의 시창작방법론과 검열과의 관계를 되짚게 한다. 부산 지역 문단에서조차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임수생 시의 한 면목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다.

주제어 : 1980년대, 임수생, 리얼리즘, 시, 검열

## 1. 들어가며

임수생 시인(1940~2016)은 1959년 『자유문학』에 시가 추천되고 같은 해 시집 『형벌』을 발간하면서 시단에 데뷔했다. 시인은 ‘저항의 시인, 자유의 시인, 혁명의 시인’<sup>1)</sup>으로 불릴 만큼 리얼리즘 문학 정신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실천적 성격을 담지<sup>2)</sup>한 시를 써 왔으며, 이러한 시적 경향은 첫 시집에서 마지막 시집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1) 『“꽃노을 강변에 서서” 거침없던 임수생 기억하다』, 『국제신문』, 2016.08.31, 25면.  
2) 시인은 자신의 시론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그의 시적 경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문학은 자기 시대의 삶의 표현임과 동시에 삶 그 자체이며 역사의 증언이다. 삶을 위협하는 폭력과 파쇼정치가 판을 치는 시대에는 인간은 삶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과 파쇼정치에 대항해 삶을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학도 폭력과 파쇼정치에 대항해 인간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문학적 표현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시대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문학을 해야 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삶에 밀착된 삶으로서의 문학을 해야 한다.” 임수생, 『시집을 내면서』, 『혁명철학』, 빛남, 1994, 4쪽.

물론 그의 긴 시작 활동 기간 동안 시적 양상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의 초기시는 낭만주의·상징주의·실존주의에 강한 영향력<sup>3)</sup>을 받았는데 이를 논자는 임수생 시인의 추모글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부터 초극하여 절대적인 자유를 향해 비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sup>4)</sup>이라 쓴 바 있다. 이후 70~80년대의 민족민중문학론에 입각한 시창작에 주로 몰두한 시인은 2000년대 들어 생태주의로 관심의 초점을 이동하게 되는 바, 단지 시적 소재로서의 생태주의 뿐만 아니라 시적 당위로도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시세계의 근간에는 리얼리즘의 ‘일상적 진실’과 ‘당위적 진실’ 사이의 긴장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sup>5)</sup>

임수생 시인이 묶은 시집은 총 9권<sup>6)</sup>으로 그의 긴 시작 활동 기간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 주지할만한 사실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및 평가가 지금까지 거의 전무했다는 점이다. 그의 시집에는 ‘해설’ 형식의 평이 실린 적이 없고 작품의 소재적 차원에서조차 문단

3) 임수생, 『사상(思想)의 파괴』, 『인터넷시대의 통일문학과 환경』, 푸른별, 2001, 150-153쪽.

4) 손남훈, 『리얼리즘을 향한 도달할 수 없는 여정』, 『작가와사회』 2016년 여름호.

5) 임수생 시인은 자신의 시적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 시의 경향은 초창기의 주지주의시 모더니즘시를 비롯해 민족시 통일시, 혁명시 항쟁시, 자연시 환경시, 부모님에 관한 시, 정치사회풍자4행시, 정치권력비판시, 반전반미시(反戰反美詩), 서정시 정통시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시를 500여 편 창작했는데 참여시 계열이 거의 80%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내 시 작품은 리얼리즘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임수생, 『시인은 시대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작가와사회』 2015년 봄호, 75쪽.

6) 첫 시집 『형벌』(정토문화사, 1959) 이후 제2시집 『깨끗, 그 진한 빛깔의 철학』(일중사, 1986), 제3시집 『절실함은 무엇인가』(빛남, 1988), 제4시집 『혁명철학』(빛남, 1994), 제5시집 『진달래꽃 한아름 보듬고서』(지평, 1996), 제6시집 『개망나니들의 노래』(푸른별, 2000), 제7시집 『바람아 구름아 새들아』(푸른별, 2005), 제8시집 『사람이랑 꽃이랑 하나가 되어』(푸른별, 2009), 제9시집 『지구여 지켜가는 지구여』(푸른별, 2013)를 발간하였다. 산문집으로는 『인터넷시대의 통일문학과 환경』(푸른별, 2001)이 있으며 시인의 별세 이후 선집 『꽃노을 강변에 서서』(푸른별, 2016)가 발간되었다.

에 거론된 경우도 극히 드물다.<sup>7)</sup> 근래 부산 문단에서 정훈<sup>8)</sup>과 류명선<sup>9)</sup>, 손남훈<sup>10)</sup>이 시인의 행적과 시세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시인의 작품 창작성과에 비해 문학적 가치 매김은 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입수생 시인의 작품 세계를 1980년대를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1980년대 부산 리얼리즘 시문학의 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1980년대의 시대 상황과 그에 대한 시적 대응 방식의 한 양태를 입수생 시를 통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본고가 입수생 시인의 1980년대 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리얼리즘 시적 경향을 가장 전형적이고 일목요연한 방식으로 제기한 것이 1980년대 그의 시편이며, 따라서 입수생 시의 전체적인 시세계를 1980년대 그의 시적 작업에 대한 선행적 평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2. 1980년대 입수생 시텍스트의 확정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는 1979년 10·26과 곧이어 발발한 12·12 사

7) 민병욱은 입수생 시집 『혁명철학』에 실린 부마항쟁의 문학적 수용 양상을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들의 역사」는 부마항쟁의 사실적 재현이고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 「우리는 다같은 형제」,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혁명정신이라는 추상적인 정신의 선동적 관념적 차원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민병욱,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港都釜山』 제27호, 2011, 12-17쪽. 이외에도 부산문학사를 다룬 몇몇 저작(『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사료집』, 『부산 문학사 50년사』 등)에서 입수생 시인의 이름이 확인된다.

8) 정훈, 「산조의 시와 투명한 정신의 삶을 위한 엘러지-입수생 시의 세계」, 『작가와사회』 2015년 봄호.

9) 류명선, 「온몸으로 시와 살아온 혁명의 시인 입수생」, 『작가와사회』 2016년 여름호.

10) 손남훈, 앞의 글.

태, 짧았던 ‘서울의 봄’과 1980년 5·17 쿠데타, 5월 광주로 이어지는 숨 가쁜 역사적 격변 과정을 거치며 시작되었다. 특히 80년 5월 광주 항쟁은 기존의 소시민적 투쟁의 양상을 새로운 민중민족운동으로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며 문학에서도 운동으로서의 문학이 강조<sup>11)</sup>되어, “첫째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민중기층계급의 생활정서와 이들의 역사의식의 형상화 작업, 둘째 기층민중의 궁극적인 고뇌로부터의 해방이란 통일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일론에 대한 관심이 문학에서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당대주의적 반역사성을 띤 지배계층과 대립관계에 설 수밖에 없<sup>12)</sup>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 현실 비판적이고 참여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입수생의 시 또한 노동자·민중·민족 중심의 리얼리즘 시편을 다수 생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름의 혁명 담론을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런데 입수생 시의 1980년대 시적 경향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작품을 1980년대 작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이하게도 그의 시의 말미에는 모두 시의 창작 연월일이 밝혀져 있다. 시인은 그 이유를 “시인의 변화 과정과 일관성, 그리고 민족분단의 역사성을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sup>13)</sup>”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시집 『진달래꽃 한아름 보듬고서』, 『바람아 구름아 새들아』, 『사람이랑 꽃이랑 하나가 되어』에는 창작 연월일과 함께 발표 연월일과 발표 지면까지 정리·공개하고 있다.

시인이 제시한 이와 같은 정보는 1980년대 시인이 창작·발표한 작품

11) 이성혁, 『1970~1980년대 한국 문학운동 담론에서 ‘지식인-문학인’ 위상의 변천 -‘시민문학론’에서 ‘노동해방문학론’까지』, 『진보평론』 제69집, 2016.10, 136-139쪽.

12) 김용락, 『민족문학 논쟁사 연구』, 실천문화사, 1997, 165쪽.

13) 입수생, 『시인은 말한다』, 『질실함은 무엇인가』, 빛남, 1988, 133쪽.

과 그 외 작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주는 주요 근거가 된다. 즉 1980년대 발간된 두 권의 시집 『개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과 『절실함은 무엇인가』의 모든 작품이 1980년대 창작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반대로 1994년에 발간된 『혁명철학』의 일부 작품들은 이미 1980년대에 창작과 발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나아가 1980년대 창작했다 하더라도, 시인의 전기적인 상황이나 당대의 검열 제도, 작품 발표 지면 미확보로 시기를 놓치는 등 여러 변수에 의해 1980년대에 발표되지 못하고 90년대 이후에 발표된 정황도 확인되며, 반대로 1980년대 이전에 창작한 작품이 1980년대 발간된 시집이나 다른 매체에 발표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입수생 시인의 시세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지 1980년대 발간된 두 권의 시집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창작하고 발표된 작품을 선별하여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980년대 창작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의 작품이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1980년대 창작한 작품들 중 중요한 정치적 쟁점, 즉 검열에 의한 필화 사건을 야기 시킬 만한 작품들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야 발표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그의 시 『대학살』은 광주항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작품의 창작 연월일은 1980년 5월 21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1994년 발간된 『혁명철학』에 실리게 된다. 『조국통일은 우리의 가슴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은 1989년 6월 30일에 창작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날은 소위 ‘임수경 방북 사건’ 당일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임수경이여/ 위대한 조선의 딸이여”라고 시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시 또한 검열에 의해 당대에 발표되기는 어려웠을 작품인 것이다. 결국 이 시도 다른 지면을 찾지 못하고 『혁명철학』에 실리게 된다.

이처럼 시인이 작성한 시작품 연보를 보면, 유난히 창작 연월일과 발표 연월일의 시간적 격차가 많은 작품들이 몇몇 눈에 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의 시적 경향은 당대에 공적 매체에 발표되기 힘든, 즉 충분히 필화 사건이 일어날 만큼의 정치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1980년대 창작했다가 1990년대 이후에 가서야 발표 지면을 확보한 작품들이 더욱 그러하다. 이는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정부의 검열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대로, 1950~60년대 또는 70년대에 창작했다가 1980년대 발표된 작품도 존재하는데, 이들 작품의 경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작품의 정치적 색채나 검열과는 상관없이 시인의 전기적 이유로 작품 발표가 늦은 경우다. 이를테면, 초기작 『불회귀선』은 1958년 7월에 창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스포츠부산』 창간호인 1984년 6월 1일자에 실리게 된다. 이 시는 이별의 상황에 처한 인물의 슬픔을 낭만적·상징적으로 처리한 작품으로 1980년대 창작된 시인의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때 정치적 색채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이 검열에 대한 의식 때문에 실리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먼 훗날에서야 실리게 된 것은 모종의 전기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반도의 꽃노을』의 경우, 1959년 7월에 창작한 것으로 시인은 기록하고 있으나 발표는 『시와자유』 제2집이 발간된 1983년 7월 10일로 되어 있다. 시인은 이 작품이 본래 첫 시집 『형벌』에 수록되어야 했으나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sup>14)</sup> 그렇다면, 이 작품이 여전히 검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1980년대에 실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작품이 실린 『시와자유』가 무크지였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기존의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이 폐간되고 언론 통폐합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학적 대응 방식으로 무크지 운동이 벌어졌는데 『시와자유』 또한 1년에 한 번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동인지 성격의 무크지였다.<sup>15)</sup>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무크지만한 대안이 없었던

14) 입수생, 『시인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 위의 책, 83쪽.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작품이 직접적으로 ‘사상적으로 불온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시인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 작품을 가리켜 “외세를 배격한 조국통일, 민족의 주체성 확립, 통일을 위한 민족단결을 강조했다. 나는 이 시를 나의 다른 시들과는 달리 은유법을 동원해 정감적이며 서정적으로 묘사했다”<sup>16)</sup>고 밝히고 있는데 시인 스스로도 이 작품이 이데올로기적 성격보다는 조국 통일의 당위와 민족적 단결을 촉구하는, 당대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만한 작품이라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열 대상이 되지 않는 작품으로 생각하여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인은 『송인(松人)의 저항일지 개요』<sup>17)</sup>에서 자신이 겪은 필화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의 맹세> 개작으로 혼이 났던 기억을 시작으로, 시 <지붕>의 필화 경험, <반도의 꽃노을> 검열 삭제, 부산시 문화상 수상 취소 사건 등 그는 등단한 해부터 오랜 기간동안 필화와 불온 인물 낙인에 시달린다. 이것은 그의 작품이 지닌 저항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의 시작(詩作)은 늘 자타의 검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쓰는 것은

15) 이 매체는 1982년 8월 24일 부산시 광복동 보리수다방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탄생했다. 김석규, 김영준, 박응석, 박태문, 이해웅, 임수생이 동인으로 활동했다. 1982년 9월 8일 당시 부산에서 활동하던 이형기가 임회를 하고 1982년 12월 10일 창간호를 발간한다.(정재필 외 7명, 『『詩와 自由』 연혁』, 『詩와 自由』 제35집, 태산, 2015, 90쪽) 여기에는 총 34편의 시가 실리는데, 그 중 임수생은 『시인출현』, 『침략성서』, 『여섯살의 압둘라』, 『시를 쓰기 위하여』, 『구엔 카오 키』의 5편을 실는다. 이들 작품은 모두 1980년 이후에 창작한 것이다. 2집에는 임수생 시인의 작품으로 『반도의 꽃노을』(1959년 창작), 『冷戰』(1960년 창작), 『약소민족』(1960년 창작), 『臨時놀이터』(1980년 창작), 『총통 프랑코』(1983년 창작)가 실린다.(시인이 작성한 시작품 연보 참조)

16) 임수생, 『인터넷시대의 통일문학과 환경』, 243-244쪽.

17) 임수생, 『송인(松人)의 저항일지 개요』, 『인터넷시대의 통일문학과 환경』, 240-249쪽.

그렇다 치더라도 발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이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그의 1980년대 시적 경향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창작하고 발표된 작품으로 한정짓되, 발표된 작품과 검열과의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1980년대에 창작했다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작품의 경우, 이는 시인의 80년대를 조망할 수 있는 단서 내지는 참조사항이 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당대 검열의 눈을 피하면서 자신의 시적 역량을 분출하기 위한 길항의 과정을 80년대 창작, 90년대 발표한 작품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 입수생 시인의 1980년대 시작(詩作)은 자타의 검열을 의식하면서 창작과 발표로 이어져 왔고 따라서 80년대에 창작과 발표가 이루어진 작품에서 그의 1980년대 작품의 특징을 유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할 것이다. 더욱이, 90년대 소위 ‘후일담 문학’이 보여주는 80년대 자아의 반성적·고백적 태도는 늘 모종의 자기 알리바이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대의 현실 의식에 뿌리박은 입수생의 시편들이 당대의 독자를 겨냥할 때 큰 파급 효과를 자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에도 80년대에 창작되고 발표된 작품을 살펴보는 데서 입수생 시인의 1980년대 시세계를 규명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창작되고 발표된 입수생 시의 작품을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수록 시집명              | 작품명             | 창작 연월일   | 발표 연월일   |
|---------------------|-----------------|----------|----------|
| 『개꽃』 <sup>18)</sup> | 시인 출현           | 82.03.02 | 82.12.10 |
| 『개꽃』                | 교합              | 80.12.10 | 81.12.10 |
| 『개꽃』                | 코미디             | 82.09.12 | 82.12.   |
| 『개꽃』                | 시를 쓰기 위하여       | 82.10.16 | 82.12.10 |
| 『개꽃』                | 시를 뺏하러 쓰노       | 82.12.10 | 84.10    |
| 『개꽃』                | 개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 | 81.11.03 | 83.05.16 |

|                     |                           |          |          |
|---------------------|---------------------------|----------|----------|
| 『절실』 <sup>19)</sup> | 구엔 카오 키                   | 80.02.07 | 82.12.10 |
| 『절실』                | 臨時놀이터                     | 80.05.27 | 83.12.30 |
| 『절실』                | 헌법이 좋으면 뭐하누               | 81.01.10 | 84.11.05 |
| 『절실』                | 새                         | 81.03.18 | 81.12.27 |
| 『절실』                | 장례식                       | 81.05.05 | 86.01    |
| 『절실』                | 거울잠                       | 81.06.25 | 81.07.10 |
| 『절실』                | 코미디언                      | 81.08.02 | 84.06    |
| 『절실』                | 침략성서                      | 82.09.20 | 82.12.10 |
| 『절실』                | 여섯살의 압둘라                  | 82.09.27 | 82.12.10 |
| 『절실』                | 자유                        | 82.10.10 | 84.10    |
| 『절실』                | 우리들의 논쟁                   | 82.10.31 | 84.06    |
| 『절실』                | 총통 프랑코                    | 83.10.31 | 83.12.30 |
| 『절실』                | 도살장                       | 84.07.27 | 84.11.05 |
| 『절실』                | 아가야, 너희들이 자라면             | 84.08.02 | 84.10    |
| 『절실』                | 말라카낭 고향                   | 84.12.03 | 86.01    |
| 『절실』                | 산맥                        | 85.05.27 | 85.10.31 |
| 『절실』                | 절실함은 무엇인가                 | 85.08.27 | 87.12.05 |
| 『절실』                | 그 사람, 사람 잡네               | 85.08.09 | 86.01    |
| 『절실』                | 시집 한권 반쯤 내는 거야            | 85.09.06 | 86.01    |
| 『절실』                | 아이들이 울고 있다                | 86.05.20 | 87.12.05 |
| 『절실』                | 산이여, 통곡하는 산이여 1. 벼랑 끝의 바다 | 86.09.02 | 86.09.30 |
| 『절실』                | 산이여, 통곡하는 산이여 2. 강물의 흐름   | 86.09.02 | 86.09.30 |
| 『절실』                | 산이여, 통곡하는 산이여 3. 능선의 묘지   | 86.09.02 | 87.12.05 |
| 『절실』                | 산이여, 통곡하는 산이여 4. 지하토굴     | 86.09.02 | 87.12.05 |
| 『혁명』 <sup>20)</sup> | 민족론 1. 총론                 | 86.06.23 | 89.05    |
| 『혁명』                | 철 이른 탓만은 아니다              | 87.04.12 | 89.05    |
| 『혁명』                | 과도                        | 87.09.07 | 87.10.30 |
| 『혁명』                | 우리들의 역사                   | 87.09.08 | 87.10.30 |
| 『혁명』                | 역사비판                      | 88.01.30 | 88.11.15 |
| 『혁명』                | 4월과 5월 그리고 여름             | 88.04.13 | 88.11.15 |
| 『혁명』                | 조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88.04.28 | 88.06    |
| 『혁명』                | 한 시대를 살면서                 | 88.05.04 | 88.11.15 |
| 『혁명』                | 유세장의 나비                   | 88.04.17 | 89.05    |
| 『혁명』                | 우리는 건강하다                  | 88.07.25 | 88.08    |
| 『혁명』                | 열차는 달린다                   | 89.01.10 | 89.04.12 |
| 『혁명』                | 깨꽃                        | 88.09.27 | 89.05    |
| 『혁명』                | 신호등                       | 89.04.11 | 89.04.11 |
| 『혁명』                | 연필은 총칼 앞에 굴하지 않는다         | 88.07.11 | 88.07.12 |
| 『혁명』                | 언론노조의 노래                  | 88.07.11 | 89.01.20 |

|      |               |          |          |
|------|---------------|----------|----------|
| 『혁명』 | 힘, 영원한 우리의 자유 | 89.05.25 | 89.06.02 |
| 『혁명』 | 거대한 불꽃 부마민중항쟁 | 89.10.07 | 89.10.16 |
| 『혁명』 | 붉은 피트는 핏줄끼리   | 89.12.22 | 89.12.30 |
| 『혁명』 | 종살이           | 81.01.20 | 89년 가을   |
| 『혁명』 | 일터            | 82.10.28 | 89.12.   |
| 『혁명』 | 권투를 보며        | 84.01.28 | 89년 가을   |
| 『혁명』 | 내 이웃의 가난      | 84.02.27 | 89.12    |
| 『혁명』 | 용불용설          | 84.07.31 | 89.10.25 |
| 『혁명』 | 수령을 넘으면       | 84.08.19 | 89년 가을   |

### 3. 입수생 시의 시적 경향 분류

본고는 위의 표로 정리된 시텍스트에서 1980년대 입수생 시의 경향을 세 가지 계열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검열에 대한 시인의 의식과 작품 내용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 1) 소박한 리얼리즘 계열

이 계열은 대체로 사실적 재현에 충실하면서도 소박한 당위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실주의 성향의 작품들을 포함한다. 『절실함은 무엇인가』에 실린 「우리들의 논쟁」, 「그 사람, 사람 잡네」, 「시집 한권 반쯤 내는 거야」, 「아이들이 울고 있다」는 이 계열의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정치 권력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의 삶을 그리는 경우(「아이들이 울고 있다」) 당대 사회와 현실, 세계관에 대한 공허한 논쟁으로 인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우리들의 논쟁」), 민중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위선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하는 경우(「그 사람, 사람 잡네」), 현실적 생활과 당위적

18) 입수생, 『개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을 『개꽃』으로 줄여 표기.

19) 입수생, 『절실함은 무엇인가』를 『절실』로 줄여 표기.

20) 입수생, 『혁명철학』을 『혁명』으로 줄여 표기.

혁명 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단하는 화자의 진솔한 내면을 재현하는 경우(『시집 한권 반쯤 내는 거야』)로 나타나고 있다.

철없는 아이들 중 그 누가/ 최루탄 가스를 맞고 울지 않으랴/ 순진무  
구한 어린 아이들 중 그 누가/ 어른들의 세계를 판단할 수 있으랴/ 어린  
이들은 최루탄 가스를/ 째다고 칭얼대며 울기 일쑤다

- 「아이들이 울고 있다」 부분, 『절실함은 무엇인가』, 108-109쪽.

자유는 쟁취냐 권리냐/ 우리 시대의 철학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우리의 논쟁은 우리의 논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의  
논쟁은 도로아미타불로 그칠 날이 없었다.

- 「우리들의 논쟁」 부분, 『절실함은 무엇인가』, 67쪽.

직장의/ 가난한 심부름하는 소녀가/ 허기와 영양실조로 쓰러졌을 때/  
그 소녀가 입원했을 때/ 화투놀이패들과 그녀는/ 화투와 책에만 눈이 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 사회학 책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사  
회학이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녀가 자주 지껄이던/ 노동 현장과 농민  
혁명과/ 그런 것들이 행방을 감추었다/ 한푼의 지폐가 아까와서가 아니  
라/ 그들은 서로에게 정을 주기를 두려워했다.

- 「그 사람, 사람 잡네」 부분, 『절실함은 무엇인가』, 101쪽.

시인의 퇴직금은/ 재벌 기업 간부 사원의 한달 봉급일 뿐/ 그것을 가  
지고 고심하는구나./ (그것도 머저리 같이?)/ 어쨌든 시인은/ 어차피 한  
두번 굶었나?/ 쥐꼬리만한 퇴직금으로/ 자유와 권리가 글자마다 절규하  
는/ 시집 한권 반쯤은/ 내놓고 보는 거야.

- 「시집 한권 반쯤 내는 거야」 부분, 『절실함은 무엇인가』, 107쪽.

이러한 시인의 시적 경향은 『혁명철학』의 「역사비판」, 「한 시대를 살  
면서」, 「우리는 건강하다」, 「일터」, 「용불용설」에도 볼 수 있다. 「역사비  
판」과 「용불용설」은 「그 사람, 사람 잡네」와 같은 위선적 인간상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고 「한 시대를 살면서」는 「시집 한권 반쯤 내는 거야」처

럼 혁명 정신의 당위성을 되새기는 자기 다짐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건강하다』는 장애인들을 향한 시인의 따스한 시선이 담겨 있고 『일터』는 노동의 건강성을 형상화했다.

이 계열의 작품들은 80년대 창작·발표된 다른 계열의 작품, 특히 뒤에 기술할 저항시·혁명시 계열의 작품보다 적은 수를 차지한다. 1980년대 시인은 지금, 여기의 재현적 진실과 소박한 당위와의 화해나 길항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존재와 당위 사이의 극단적 거리를 메워 줄 혁명 정신을 민중들이 무장해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위협하는 폭력과 파쇼정치가 판을 치는 시대에는 인간은 삶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과 파쇼정치에 대항해 삶을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학도 폭력과 파쇼정치에 대항해 인간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문학적 표현력을 총동원해야 한다.”<sup>21)</sup>고 믿는 피아, 선악 이분법이 철저한 시인에게 소박한 당위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가속화되면서 시인은 이 계열의 시보다는 정치적·구호적·저항적·혁명적 성향의 시를 쓰는 것이 자신의 소명 의식임을 더욱 체감했을 것이기에, 이 계열의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가 되었던 듯하다.

## 2) 알레고리·비판시 계열

이 계열의 작품들은 대체로 한국의 정치 상황, 즉 신군부 독재 체제에 대한 에두른 비판이 깔려 있다. 『절실함은 무엇인가』에 실린 『구엔 카오 키』, 『臨時놀이터』, 『헌법이 좋으면 뭐하누』, 『새』, 『장례식』, 『코미디언』, 『침략성서』, 『여섯 살의 압둘라』, 『총통 프랑코』, 『말라카낭 함』은 대체로 거리감을 둔 어떤 대상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보이는 시적 형상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구엔 카오 키』, 『총통 프랑코』, 『말라카낭 함』은 외국 독재자의 민중 억압 사실을 자세히

21) 입수생, 『시집을 내면서』, 『혁명철학』, 4쪽.

전개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작품들인데, 이들 외국 독재자는 한국 독재자에 곧바로 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레고리로 읽을 여지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씌어진 「장례식」은 부르티스에게 암살 당한 시저와 시저의 죽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시나의 목소리를 통해 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를 충분히 상기시켜 주고 있으며, 「코미디언」 역시 우스꽝스런 코미디언과 독재자를 곧바로 대칭시키는 진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창작 연도가 그리 멀지 않은 80년대 초로 기록되어 있는 점 또한 이와 같은 논증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은 검열을 의식하여 1980년대 초 한국의 굼직굼직한 정치 현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웠던 시인이 외국 독재자의 사례나 코미디언, 문학 작품을 차용함으로써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엔 카오 키/ 그는 캘리포니아 술장수/ 한때는 베트남 强者로서/ 메콩강이 흐르는 常夏의 베트남/ 사이공의 그 정치 중심부에 버티고 앉아/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둘렀지.

- 「구엔 카오 키」 부분, 『절실함은 무엇인가』, 38쪽.

총통 프랑코/ 프랑코는 독재자/ 그는 마침내 죽었다./ 그가 착취한 인민/ 그가 학살한 인민/ 그들 인민도 죽었다./ …(중략)…/ 그는 살아서는 최고의 영광을/ 합리적인 학살의 권력까지도/ 정치권력의 정당성으로 평가됐고/ 죽어서는 國父의 영예로/ 국립묘지에 묻혀/ 우리의 가슴을 / 우리의 歷史철학을/ 참혹한 슬픔으로 몰아 넣었다

- 「총통 프랑코」, 『절실함은 무엇인가』, 68-69쪽.

자유를 함성을 총소리로 막아버린/ 너는 무엇인가./ 역사는 학살자를 기록했고/ 학살된 인민의 묘지를 기록했고/ 말라카낭궁의 웅장함과/ 너의 웃음의 잔인성을/ 결코 빠뜨리지 않고 후세에 남긴다./ 역사는 학살보다도 더한 정당성으로/ 너의 독재 정치를/ 비정할만큼 냉정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자유를 부르짖는 인민은 왜 죽어야 하며/ 빼앗긴 자유를

되찾으려는/ 인민은 왜 권력에 학살돼야 하는가를/ 독재자여/ 너는 웃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

- 「말라카낭궁」, 86-87쪽.

같은 맥락에서 「침략성서」의 가해자 이스라엘과 「여섯 살의 압둘라」  
의 피해자 팔레스타인 회교도인의 대립되는 짝을 보여주는 아래 두 편  
의 시도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과 이들에게 착취 당하는 당대 한국 민중  
의 삶으로 쉽게 대치될 수 있다.

이스라엘/ 너의 민족은 聖書を 낳았고/ 위대한 先知者를 가졌지만/  
너의 그런 것은/ 네 민족의 비극에서 시작됐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2천년 전에 갈가리 흩어졌고/ 너희들은 그때 나라를 잃었다./ 어째서 이  
스라엘은/ 고증으로만 남아 있는 땅에/ 2천년이나 살아 온 팔레스타인  
人을 추방하고/ 너희 국가를 창건했으며/ 이제는 중동에 戰雲을 불러 와  
/ 너희들의 출애굽기와/ 마사당 抗死를 이웃 종족에 되풀이하며/ 세계의  
학살자로 군림했는가.

- 「침략성서」 부분, 『절실함은 무엇인가』, 57쪽.

고향 잃은 압둘라/ 압둘라는 여섯살/ 세상을 알 듯 모를 듯/ 아니,  
아직은 몰라/ 그런 나이야/ 부모가 회교도라서/ 나의 종교는 회교/ 아  
버지의 친구는 기독교도/ 아버지 친구의 아들과 나는/ 셈 族의 후예/  
종교가 다르지/ 우리는/ 내가 학살되기 전까지/ 작열하는 햇빛 아래서/  
깨벗고 덩굴던/ 서로가 동무/ 나는 아버지 친구들의 손에/ 부모와 함께/  
죽어버렸지/ …(중략)…/ 나는 自然으로 돌아가버렸어/ 사브라 난민촌  
의 참상을/ 중동의 비극을/ 어린 혼과 바꾼 채/ 철학이 됐다.

- 「여섯 살의 압둘라」 부분, 『절실함은 무엇인가』, 62-63쪽.

물론 시인이 당대 한국이라는 국가주의적 좁은 틀에서 벗어나 세계시  
민주의적 상호 호혜에 기반을 둔 거시적 시야를 확보했기에 자신의 시  
편에 이와 같은 외국의 압박/ 피압박의 사례를 기술했다고 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시인의 시편은 어디까지나 한국 민중들을 정치적 혁

명 의식으로 계몽하기 위한 알레고리적 사례 제시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검열로부터 다소간 자유로우면서도 시인의 시작 목적이 관찰되기 위해서는 알레고리로 읽을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臨時놀이터』에 표현된 “총칼을 든 계엄군”은 비상계엄군 확대조치와 광주 항쟁으로 국가 전체가 처한 공포스런 상황에 대한 에두른 비판으로 볼 수 있다.

『혁명철학』에는 주로 아래에 기술할 세 번째 계열의 시편이 많은데, 이 때문인지 『유세장의 나비』 외에는 두 번째 계열의 시편을 찾기가 어렵다. 이 시는 유세장에 날아온 나비를 초점 대상으로 삼아 전개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농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하기보다는 우연히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야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환기함으로써 비판한다. 다른 시편들에 비해 비판적 성격이 축소되어 있다.

### 3) 저항시·혁명시 계열

이 계열의 작품들은 1980년대 혁명의 분위기와 의지를 고취시키고 시적 화자의 혁명 의지를 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에 실린 『시인 출현』, 『교합』, 『코미디』, 『시를 쓰기 위하여』, 『시를 뿜하러 쓰노』,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을 이 계열의 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작품들은 80년 말부터 82년까지 씌어진 것으로 발표 연월일 또한 85년을 넘지 않는다. 이 시기 이 계열의 시편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시편에 비해 혁명적·구호적·선동적 성격보다는 감상적(『교합』), 우회적(『코미디』), 자학적(『시를 쓰기 위하여』), 자기 반성적(『시를 뿜하러 쓰노』)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의 경우에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시편이 지닌 저항적 성격을 선취하고 있다.

강가의 갈대는/ 하얀 갈꽃을 피워/ 구름에 우리를 실어/ 자유로이 날  
 라다 주건만/ 우리의 가슴은/ 찢김으로 멍을져 있다./ 땅 위에 뿌린 눈  
 물과/ 눈물로 자란 깨꽃은/ 조직의 몽상을 초월해 있다./ 학교 도서관  
 책꽂이 위에는/ 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의/ 행동철학이 나부꼈고

-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 부분,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  
 144쪽.

그러나 이 시는 1960년 4월 혁명의 경험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80  
 년대의 실천적 문학 운동과는 시적 배경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혁  
 명 담론을 생산하되 검열을 의식하여 4월 혁명을 소환한 문학적 형상화  
 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을 제외하  
 고는 당파적 선명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  
 러 학생들의 “행동”이 아닌 “행동철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수  
 생 시의 혁명 담론이 지닌 관념성도 확인할 수 있다.

『절실함은 무엇인가』에 실린 『겨울잠』, 『자유』, 『도살장』, 『아가야, 너  
 회들이 자라면』, 『산맥』, 『절실함은 무엇인가』, 『산이여, 통곡하는 산이  
 여』 연작 또한 이 계열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겨울잠』과 『자유』는 민  
 중을 각각 견공(犬公)과 우공(牛公)에 비유하면서 70년대 말 이후 혁명  
 의지를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  
 유』는 혁명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아가야, 너희들이 자라면』은 후대를 위해 지금, 이 시기의 역사적 과업  
 인 민주화를 쟁취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하며, 『산맥』과 『산이여, 통  
 곡하는 산이여』 연작은 산과 바다, 절벽, 강 등 압도적인 자연을 당대의  
 역사적 맥락으로 전유하면서 혁명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시인의 의  
 도를 보여준다. 『절실함은 무엇인가』는 60년 4월 혁명과 80년 5월 광주  
 를 환기하면서 위선자들을 비판하고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자아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에 비해 전체적으로

선동적·정치적 성격이 다소 강해지나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제시보다는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거나(『겨울잠』, 『도살장』, 『산맥』, 『산이여, 통곡하는 산이여』 연작) 어조를 드높이지는 않는 문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자유』, 『아가야, 너희들이 자라면』, 『절실함은 무엇인가』) 경향을 띠고 있다. 작품이 지닌 이와 같은 성격 또한 신군부의 강력한 검열 정책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창작 및 발표 연도가 80년대 중반에 근접하는 만큼, 『혁명철학』에 나타나는 저항시·혁명시 계열 작품으로의 이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4년-89년에 창작되고 발표된 『혁명철학』에 실린 「민족론 1. 총론」, 「철이른 탓만은 아니다」, 「파도」, 「우리들의 역사」, 「4월과 5월 그리고 여름」, 「조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열차는 달린다」, 「깨꽃」, 「신호등」, 「연필은 총칼 앞에 굴하지 않는다」, 「언론노조의 노래」, 「힘, 영원한 자유」, 「거대한 불꽃 부마항쟁」, 「붉은 핏줄은 핏줄끼리」, 「종살이」, 「권투를 보며」, 「내 이웃의 가난」, 「수령을 넘으면」도 이 계열의 작품에 해당한다. 『절실함은 무엇인가』에 실린 80년대 창작 및 발표된 전체 작품 수와 『혁명철학』의 그것이 같음에도(24편) 이 계열의 작품 수는 이전 시집의 편수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시인의 민주화·혁명 의지가 드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87년 6월 항쟁 전후로 씌어진 이 시기, 이 계열의 시는 전두환 집권 초기였던 80년대 초중반에 비해 검열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sup>22)</sup> 민중의 민주화 열망이 더욱 거세지면서 매우 강도 높은 어조의 혁명적·구호적 성격의 시편을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발표가 가능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열차는 기적을 울리며 힘차게 질주한다./ 달리는 열차에는 역사가 실

22) 『혁명철학』에 실린 80년대 창작되고 발표된 작품 중 88년 이전에 발표된 작품은 「파도」와 「우리들의 역사」 두 편 뿐이고 이 두 편 또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발표되었다. 나머지 작품은 모두 88년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시인은 기록하고 있다. 검열 폐지는 공식적으로 1989년 1월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려 있다./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린이의 칭얼거림/ 어른들의 음모  
와 다반사로 빚어지는 배반/ 순수한 외침과 진보적 개혁/ 혁명의 열기와  
/ 보수의 유지/ 민중의 고통, 가진 자의 거드름/ 열차는 역사를 안고/ 차  
창으로 자연을 펼친다

- 「열차는 달린다」 부분, 『혁명철학』, 46쪽.

위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를 상징하는 열차는 정과  
反의 변증법적 역사철학에 기반을 두면서<sup>23)</sup> 혁명의 역사를 “힘차게 질  
주한다.” 이는 시인의 시편이 당대의 불박한 시간관에 사로잡힌, 찰나의  
혁명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서 혁명과 역사를 사  
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혁명철학』에 실린 이 계열의 작품들은 한  
개인, 한 시기, 한 나라(남한)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시적·  
통시적인 넓은 시야를 확보한 시인의 혁명 담론이 강렬하면서도 저항적  
인 어조로 형상화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론 1. 총론」이 시인 개인에서 민족 전체의 대리 표상체<sup>24)</sup>로서 혁  
명 의식을 가진 시인으로 나아가는 자아의 확대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

23) “대립물들은 모순적 성격, 즉 서로 배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반드시 투쟁이 일어난다. …(중략)… 이 갈등이 발전이나 운동과 마찬가지로  
가치 의미에서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빅토르 아파나세프, 김성환 역, 『변증법적  
유물론』, 백두, 1988, 91-92쪽.

24) “80년대 민주화 시위는 한마디로 진정한 ‘대표’(대의, 표상, representation)를 찾  
는 운동이었다. 주지하다시피 87년 운동의 대표적 구호는 ‘직선제 쟁취’였다. 참  
된 정치적 대표(대의)로서 직선 대통령, 운동의 참된 대의기구로서 민주노조와  
학생회, 여론의 참된 대의기구로서 언론의 민주화 운동(특히 국민주 신문으로서  
『한겨레』의 창간) 등이 당시 민주화 운동이 낳은 주요 성과였다.” 고병권, 「민주  
주의는 도달할 목표인가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주주의  
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1, 99쪽. 이러한 고병권의 주장은 입수생의 시나 문학  
론에서 종종 드러나는 시인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다. 즉 입수생의 시에서 시인은 혁명 담론을 이끄는 대리자이자 그 자체로 혁명  
담론을 표상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1980년대 입수생 시의 정치적 혁  
명의 방향성이 진정한 대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려  
주는 암묵적 표지가 된다.

다면 「철 이른 닳만은 아니다」는 60년 4월과 80년 5월 광주로부터 시작된 혁명 의지를 역사적으로 대망하는 거시적인 시야를 확보한다. 「우리들의 역사」 또한 79년 10월 부마 항쟁을 체험적으로 기록하면서도 그것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87년 6월 항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다. 「조국의 이름은 무엇인가」에서 시인은 노동 운동,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이 근대국민국가의 완성된 체제를 이루는 다르지 않은 길임을 보여주며 그 당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연필은 총칼 앞에 굴하지 않는다」, 「언론노조의 노래」는 88년 7월 부산일보 언론노조 파업 당시의 자전적 체험에 기초한 시로 격렬한 투쟁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계열의 이전 시편들이 종종 보여주던 개인적, 당대적 차원에 머물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혁명 의지의 시공간적 확장을 통해 총체적 변혁의 논리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 리얼리즘 시 경향의 고착화와 시인 의식의 강박적 반복

그런데 1980년대 임수생의 시에 나타나는 이처럼 선명한 리얼리즘적 시세계는 어떠한 동력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시인은 자신의 리얼리즘적 시 경향을 “좌익사상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아버님과 어머니의 사상을 철들무렵부터 피부로 호흡하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었던 것”<sup>25)</sup> 또는 “내가 당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하며 문학은 동시대의 삶의 표현임과 동시에 역사의 증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유년시절부터이다. 나의 저항정신과 참여정신은 전적으로 어릴 때의 영향이다.”<sup>26)</sup>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것에만 의

25) 임수생, 『송인(松人)의 저항일지 개요』, 240쪽.

존<sup>27)</sup>해서는 그의 시력(詩歷)에 나타나는 시적 일관성의 이유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입수생 시인의 시집<sup>28)</sup>에는 다른 시집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① 모든 시작품에 작품 창작 연도 표기 ② 시집 말미에 작품 연보 제시<sup>29)</sup> ③ 시인에 대한 자세한 이력서 제시<sup>30)</sup> ④ 모든 시집의 앞이나 뒤에 시인의 시론이나 창작 방법론 제시 ⑤ 시집 해설이나 발문 등이 없고 대신 자전 산문 제시<sup>31)</sup>가 그것이다. 또한 시집의 형식과는 관계없지만, 자신의 필화 경험을 여러 지면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sup>32)</sup>도 작품의 가치 평가와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특이한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이한 양상들은 입수생 시인의 시인됨을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강박적으로 작품 창작 연도를 표기

- 
- 26) 입수생, 『시인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구여 지쳐가는 지구여』, 108쪽. 『작가와사회』 2015년 봄호에 실린 시인의 자전 산문 『시인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 76쪽에도 거의 같은 진술로 씌어지고 있다.
- 27) 정훈의 글도 입수생 시인과 같이 유년 시절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전쟁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아직도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아버지와 굳은 신념 하나로 생을 지탱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시인에게 비극적인 가족사를 낳게 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직시하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한 주요 동인(動因)이 되었다.” 정훈, 앞의 글, 97쪽.
- 28) 첫 시집 『형벌』은 시인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정훈, 위의 글, 92쪽.
- 29) 『진달래꽃 한아름 보듬고서』, 『바람아 구름아 새들아』, 『사람이랑 꽃이랑 하나가 되어』.
- 30) 『개망나니들의 노래』, 『바람아 구름아 새들아』, 『사람이랑 꽃이랑 하나가 되어』, 『지구여 지쳐가는 지구여』.
- 31) 『21세기 우리 시의 과제』, 『개망나니들의 노래』; 『시인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구여 지쳐가는 지구여』.
- 32) 『시집을 내면서』, 『혁명철학』; 『송인(松人)의 저항일지 개요』, 『인터넷시대의 통일문학과 환경』; 『시집을 내면서』, 『사람이랑 꽃이랑 하나가 되어』; 『나의 문단 등단기』, 『작은文學』 2012년 여름·가을호, 작은문학사; 『시인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구여 지쳐가는 지구여』; 『시인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 『작가와사회』 2015년 봄호.

하고 연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자신의 시작 활동과 민주화 투쟁 경력을 될 수 있는 한 독자에게 자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짧은 길든 산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시론과 창작방법론을 알리는 시인. 특히 산문에 자신의 필화 경험이 더해진다면 시인으로서의 자기 증명은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시인은 이와 같은 내외부의 상황을 통해 자신이 시인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인의 이력 중에 등단 이후 <경향신문>, <조선일보> 신춘문에 가작 입선이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시인의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승만정권하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비롯해 일반서적 등 일체의 출판물에는 책 뒷면에 <우리의 맹세>라는 반공이념을 필히 게재해야만 했다. 나는 이것을 중학교에 입학하고 첫소집 때 나대로 개작을 했다. …(중략)… 칠없는 학생의 개작은 사건을 불렀다. …(중략)…나는 교무실로 불려가 직사계 얻어맞고 코피를 줄줄 흘렸다. 지서(파출소)로 보내야 한다는 선생님의 강력한 조치를 동료교사들이 말려 나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가 호출을 받았고 나의 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짹짹 빌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 『송인(松人)의 저항일지 개요』, 『인터넷시대의 통일문학과 환경』, 240-242쪽.

그렇다면 시인의 이와 같은 시인으로서의 자기 반복적인 확인 의식은 어디서부터 비롯하는가? 시인에 따르면 그에게 강렬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작용한 최초의 사건은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우리의 맹세> 개작 행위라고 한다. 시인은 <우리의 맹세> 원문의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공산침략자’를 ‘미제침략자’로, ‘태극기’를 ‘인민공화국기’로 바꾸는 바람에 크게 혼쫓이 났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시인에게 최초로 글쓰기가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알게 했고 어린 시인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이에게, 비록 좋지 않은

일이지만, 알려지는 계기가 되게 했다. 게다가 선생에게 혼이 나면 날수록 사상적으로 ‘불온한’ 아버지와의 동일성을 상상적으로나마 회복할 수 있게 하고 결여를 메울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이 최초의 글쓰기는 한 철없는 소년에게 공포 이상의 ‘즐거움’을, 그것도 지배적 권력의 의도에 배반하는 글쓰기의 즐거운 경험을 갖게 했던 것이다.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지만, 등단 이후 시인의 필화 경험은 곧 선생이 하는 꾸중의 반복이며, 시인이 겪는 고초는 아버지와의 환상적 동일성을 구축하는 경험적 근거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시인은 자신의 리얼리즘 시작 활동으로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투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시쓰기가 단지 지면(紙面)에 갇힌 화자의 독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개입하고, 부조리를 혁파하는 도구적 가능성을 확신하게 한 주요 사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한 리얼리즘의 시대가 한참 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음에도 일관성을 가지고 혁명을 주창했던 것에는 이와 같은 심리적·경험적 기저가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 5. 나가며

본고는 1980년대 입수생 시의 계열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 경향을 살핌으로써 입수생 시의 리얼리즘 시편이 지닌 80년대적 의미를 고찰했다. 아울러 입수생 시가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심리적·경험적 이유에 대해서도 가설적 성격의 고찰을 시도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수생 시인의 1980년대 시편은 검열에 대한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그의 상당수의 작품이 검열을 의식하면서 게재 여부가 판별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중기의 작품들이 리얼리즘 성향을 지니면서도 소박한 당위적 진실을 재현하는 데 머물거나 알

레고리를 비롯한 우회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검열과 관련된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검열이 다소 약화되면서 그의 작품들은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정치 성향을 더 강력한 구호적 메시지와 함께 분출해낸다. 검열의 시대였던 1980년대, 임수생 시인은 검열 의식과의 길항 가운데서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 여부를 고민하였으며, 시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를 통과한 한 리얼리스트 시인의 시창작방법론과 검열과의 관계를 되짚게 한다. 부산 지역 문단에서조차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임수생 시의 한 면목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임수생 시의 전체적인 시세계를 조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세계의 개성과 변화를 매끄럽게 정리하지 못했다. 또한 임수생 시의 미학적 공과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피지 못했다. 임수생 시의 리얼리즘 시가 곧 부산 지역 문단의 리얼리즘 시편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면, 시급히 임수생 시편에 대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 역시 이러한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고에서 논의되지 못한 지점들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입수생,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 일증사, 1986.  
\_\_\_\_\_, 『절실함은 무엇인가』, 빛남, 1988.  
\_\_\_\_\_, 『혁명철학』, 빛남, 1994.  
\_\_\_\_\_, 『진달래꽃 한아름 보듬고서』, 지평, 1996.  
\_\_\_\_\_, 『개망나니들의 노래』, 푸른별, 2000.  
\_\_\_\_\_, 『바람아 구름아 새들아』, 푸른별, 2005.  
\_\_\_\_\_, 『사람이랑 꽃이랑 하나가 되어』, 푸른별, 2009.  
\_\_\_\_\_, 『지구여 지쳐가는 지구여』, 푸른별, 2013.

### <단행본 및 역사>

- 구모룡 외,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사료집』 I · II, 민주공원, 2003.  
김용락, 『민족문학 논쟁사 연구』, 실천문학사, 1997, 165쪽.  
빅토르 아파나세프, 김성환 역, 『변증법적 유물론』, 백두, 1988, 91-92쪽.  
양왕용 외, 『부산 문학사 50년사』, 부산광역시문인협회, 1997.  
입수생, 『인터넷시대의 통일문학과 환경』, 푸른별, 2001.  
정재필 외 7명, 『詩와 自由』 제35집, 태산, 2015, 90쪽.

### <평론 및 소논문>

- 고병권, 『민주주의는 도달할 목표인가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1, 99쪽.  
민병욱,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港都釜山』 제27호, 2011, 12-17쪽.  
정훈, 『산조의 시와 투명한 정신의 삶을 위한 엘러지-입수생 시의 세계』,

『작가와사회』 2015년 봄호.

손남훈, 「리얼리즘을 향한 도달할 수 없는 여정」, 『작가와사회』 2016년 여름호.

이성혁, 「1970~1980년대 한국 문학운동 담론에서 ‘지식인-문학인’ 위상의 변천 -‘시민문학론’에서 ‘노동해방문학론’까지」, 『진보평론』 제69집, 2016.10, 136-139쪽.

<기타 자료>

임수생, 「나의 문단 등단기」, 『작은文學』 2012년 여름·가을호, 작은문학사.

\_\_\_\_\_, 「시인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 『작가와사회』 2015년 봄호, 75쪽.

류명선, 「온몸으로 시와 살아온 혁명의 시인 임수생」, 『작가와사회』 2016년 여름호.

「‘꽃노을 강변에 서서’ 거침없던 임수생 기억하다」, 『국제신문』, 2016.08.31, 25면.

<Abstract>

## 1980's 'Lim, Su-seng's' realistic poetry and censorship consciousness

Son, Nam-Hoon\*

This paper divided the poetry of 'Lim, Su-seng' in the 1980's into three series. And this paper examined the tendency of poetry. Thus,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of the realism poetry of 'Lim, Su-seng' in 1980's. In addition, this paper tried to hypothesize on the psychological and empirical reasons why the poetry of 'Lim, Su-seng' showed a consistent tendency.

'Lim, Su-seng's' poetry in the 1980s has an inseparable relation with consciousness of censorship. Many of his works were conscious of censorship. Whether the publication of the work is related to the censorship consciousness. The works of realism in the early and mid-1980s are reminiscent of simple and 'ought to-truth'. It also adopts a bypass strategy such as allegory. This is related to censorship. Likewise, since the mid-1980s, the censorship of the government has weakened somewhat, and his works evolve resistance and revolutionary political tendencies with stronger relief messages. In the 1980's, during the era of 'censorship', poet 'Lim, Su-seng' tried to create a work while antagonizing the censorship ceremony, worried about the presentation, and tried to improve his sense of duty as a poet. The value of his poetry, which was rarely studied even in the

---

\* Inje University

60 한국문학논총 제75집

Pusan area, can be found here.

Key Words : 1980's, 'Lim, Su-seng', Realism, Poetry, censorship

■ 논문접수 : 2017년 3월 11일

■ 심사완료 : 2017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7년 4월 17일